

4초만에 4개, 타이어 교체 타이밍이 승부 관전

스릴 만점...영암 F1 100배 즐기기

한국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영암에서 열리는 F1(세계자동차경주대회) 코리아 그랑프리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F1 그랑프리는 올 시즌 4개 대륙 총 19개 국가에서 19라운드(경기)로 치러진다. 17번째 라운드인 코리아 그랑프리는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펼쳐진다. 코리아 그랑프리는 싱가포르(9월 26일), 일본(10월 3일)에 이은 아시아지역 3연전 가운데 최종전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일본에서 경기를 마친 팀 관계자들이 10월 11일부터 무안공항을 통해 F1 머신과 장비를 운송하고 18일부터 선수와 대회 관계자, 팀별 응원 팬 등 4천여명의 외국인이 영암으로 몰려오면 코리아 그랑프리 열기가 후끈 달아 오를 전망이다.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인 F1 그랑프리가 우리지역에서 열리는 만큼 제대로 즐기는 방법을 알아보자.

3일간 예·결선...경기방식부터 익히자

F1 그랑프리는 사흘간 펼쳐진다. 첫째 날은 각 팀의 드라이버들이 각각 두 번의 연습 주행을 한다. 코리아 그랑프리 10월 22일 연습 주행이 펼쳐지는데 이 날은 한국에서 F1 머신이 공식적인 주행을 하는 역사적인 날이 된다. 둘째 날은 예선전이다. 각각 한 번의 연습주행을 마친 뒤 24명의 드라이버가 세 번의 예선전을 펼쳐, 결승 레이스의 그리드(스타트 위치)를 배정받는다. 마지막 날에는 결승 레이스가 펼쳐진다. 코리아 그랑프리 10월 24일 오후 3시에 경기가 시작된다. 5.615km의 트랙을 반시계 방향으로 55랩(바퀴)을 돌아 우승자를 가린다.

랩타임·섹터타임 알면 추월시점 예상

F1은 기록의 게임이다. 경기장을 한 바퀴 주파하는 시간기록인 '랩타임'과, 서킷을 특성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나눠놓은 '섹터타임'을 알아두는 것은 필수다. 랩타임은 상대 차량의 방해받지 않는 예선전에서 가장 뛰어난 기록이 나오게 된다. 랩타임 기록과 섹터별 기록을 알아두면 누가 직선 혹은 코너 구간에서 강한지를 알 수 있고, 언제 추월이 벌어질 것인지도 예상할 수 있어 더욱 흥미롭다.

서킷마다 특징...경주장 알면 재미 두배

F1이 펼쳐지는 19개 서킷(경주장)은 저마다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미리 기록을 살펴 해당 서킷에서 강한 팀이나 드라이버를 알아두면 우승 후보를 예상해볼 수 있다. 영암의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의 경우 총 길이는 5.615km이며 F1 서킷으로는 드물게 주행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이다. 최장 직선트랙의 길이도 1.2km여서 최고시속을 320km 이상까지 뿔어낼 수 있다. 이는 머신의 최고 시속인 350km에 근접한 속도도 F1 팬들은 코리아 그랑프리 통해 머신의 최고 직진 성능을 맛볼 수 있다.

경기중 두 종류 타이어 반드시 사용해야

타이어의 적절한 교체가 승부의 최대 변수로 작용한다. F1 규정상 모든 참가자들은 공식 타이어업체가 공급하는 두 종류의 타이어를 경기 도중 한 번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기상 조건이나 트랙의 온도에 따라 어떤 타이어를 먼저 끼우느냐 혹은 얼마나 적절한 시점에 타이어를 교체하느냐에 따라 순위는 뒤바뀔 수 있다.



대당 가격이 100억원에 육박하는 F1 머신의 질주 모습. 오는 10월 22일부터 3일간 영암 서킷에서 열리는 코리아 그랑프리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줄어드는 피트스톱 전략을 이해하자

올 시즌부터 F1 머신의 중간 급유가 금지됐다. 타이어를 교체하는 한 번의 피트스톱(타이어 교체와 정비를 위해 지정된 장소에서 멈춰 서는 것) 외에 추가로 피트스톱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이어의 교체 타이밍이 관건이기는 하지만, 이 피트스톱을 언제 하느냐가 승부의 관건이다. 급유가 없어진 피트스톱은 시간도 단축됐다. 지난 시즌까지 피트스톱에는 7초 정도가 걸렸지만 타이어만 갈아 끼우면 되는 올 시즌부터는 피트스톱 시간이 4초대로 낮아졌다. 4초 만에 타이어 4개를 갈아 끼우는 장면도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한국팀 없지만 나만의 팀 응원하자

아직 어렵게도 F1에는 한국 팀이나 선수가 없다. 하지만 전 세계 12개 팀, 24명에 불과한 F1 드라이버들은 국적을 초월해 전 세계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올 시즌 복귀한 F1의 황제 미하엘 슈마허(메르세데스)나 2009년 F1 챔피언으로 꽃미남인 드라이버 젠슨 버튼(맥라렌), 2008년 최연소(23세) F1 챔피언에 오른 루이스 해밀턴(맥라렌) 등 나만의 응원 대상을 정해두면 더욱 흥미롭게 F1을 관전할 수 있다.

F1대회조직위원회 주동진 대회운영본부장은 "F1은 전 세계 180여개국에서 6억명이 시청하는 빅 이벤트"라며 "국내 최초 대회가 우리지역에서 열린다는 자부심과 규격을 숙지해 관람하면 보람이 더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경기중 재급유 금지하고 배점 방식 변경

올해부터 달라진 F1 규정

올해부터 몇 가지 중요한 규정이 달라졌다. 가장 큰 변화는 재급유 금지다. 레이스중 급유를 금지하면서 머신과 선수 모두 대대적인 변화를 맞게 됐다. 이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승부를 가르는 가장 큰 변수가 됐다.

1시간 가량의 경기 시간, 약 307km의 F1 레이스를 완주하기 위해 필요한 연료량은 210~250ℓ. 무게로 따지면 150kg에 달하는 양으로 재급유 금지로 머신의 무게가 늘었고 연료탱크가 더 커졌다. 여기에 머신 무게 역시 기존 605kg에서 620kg이상으로 늘어나면서 드라이버의 적절한 감속과 가속 기술이 순위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특히 레이스 후반 가벼워지는 머신의 무게에 따라 순위 다툼도 치열해지고 있다.

배점 방식도 변경됐다. F1은 개별 드라이버 순위인 '드라이버 챔피언십'과 팀 순위인 '컨스트럭터즈 챔피언십'으로 나눠 종합우승을 가린다. 지난 시즌까지는 대회마다 1위부터 8위까지의 드라이버에게 각각 10·8·6·5·4·3·2·1점이 주어졌다. 하지만 올 시즌부터는



피트스톱(정비소)에서 타이어 교체와 급유를 하는 장면. 올해부터는 레이스중 급유가 금지됐다.

10위까지 점수를 주고 점수의 폭도 커졌다. 즉 1위부터 10위까지 25·18·15·12·10·8·6·4·2·1점씩을 준다. 컨스트럭터즈 챔피언십은 팀 소속 드라이버 2명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로 결정된다.

따라서 시상대에 꾸준히 오르는 드라이버가 시즌 챔피언에 오를 확률이 더 높아졌다. 중위권 드라이버 간 10위권내 순위 각축전도 심해 경기를 관전하는 재미가 더해졌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야심차게 준비한 각질관리기~!!”

신일이 만들면 모터부터 다릅니다.

선봉기, 믹서기 성공신화 신일산업에서

비교 거부 유사제품주의! **SI**마크를 확인하세요

간접제거기

매일마다 피부는 두껍게
각질은 두껍게
피부는 두껍게
각질은 두껍게
피부는 두껍게
각질은 두껍게
피부는 두껍게
각질은 두껍게
피부는 두껍게
각질은 두껍게

매일마다 피부는 두껍게
각질은 두껍게
피부는 두껍게
각질은 두껍게
피부는 두껍게
각질은 두껍게
피부는 두껍게
각질은 두껍게
피부는 두껍게
각질은 두껍게

47년 전통의 신일산업에서 만들었습니다.

기판구성
본체 + 노즐 1개 + 전선 1대

99,000원

39,800원

신일의 야심차게

신일이 만들면 모터부터 다릅니다.

구입문의 : 031-454-3110 | 신일산업 본점 302-11128-3067-71 24시간